



## 타라그룹, 2015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 인쇄학과 학생 선정...우수 재원 발굴·경쟁력 갖춘 리더 육성 계획

타라그룹(회장 강경중)은 지난 9월 8일 11시 상암동 본사에서 인쇄학과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갖춘 리더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2015년도 하반기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타라그룹은 장학증서 수여식에 앞서 부경대학교, 중부대학교, 신구대학교 등 인쇄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추천 받아 총 9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강경중 회장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백화점에 많은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수십, 수백가지의 상품중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다른 상품과 차별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가는 길을 가려고 한다. 이제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이든 청춘이든 마찬가지다”라며 “남과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와 땀이 필요하다. 남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라며, 오늘 전달하는 조그마한 정성이 청년들의 미래

에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학생들은 수여식이 끝난 뒤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에 위치한 타라티피에스 제 1공장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POD 센터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동영 부경대 인쇄정보학과 학생 등 장학생들은 “인쇄사 및 POD 센터 견학을 통해 인쇄 공정 과정을 체험하고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타라그룹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내 인쇄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재원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향후 장학금뿐만 아니라 인턴십 등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쇄 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리더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라그룹은 향후에도 인쇄 산업의 활성화 및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 \*\* 타라그룹은

타라는 깨끗한 기업, 올바른 기업이 되겠다는 경영이념 하에 '바른인쇄'라는 이름으로 1989년 설립됐다. 1998년 (주)뿌리와날개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종합인쇄회사로서 위상을 확립했다. 이후 상업인쇄 전문기업인 타라TPS, 지류유통사인 타라유통, 서울 전역 17개 지점망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라그래픽스, 맞춤형인쇄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라POD 등으로 조직된 타라그룹으로 성장했다.